

목 차

간행사

해제

일러두기

제1편 가르치는 법을 세움 - 입교立敎 / 13

제2편 사람의 도리를 밝힘 - 명륜明倫 / 22

제3편 몸을 공경함 - 경신敬身 / 50

제4편 옛일을 상고함 - 계고稽古 / 66

제5편 아름다운 말 - 가언嘉言 / 97

제6편 착한 행실 - 선행善行 / 154

제1편 가르치는 법을 세움 - 입교立敎

공자孔子의 손자 자사子思가 말하였다.

“하늘이 명령命令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등급에 따라 절제하는 것을 교敎라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이제 하늘의 밝은 명命을 본받고 성인聖人의 법法을 따라 이 책을 지어, 스승이 된 자로 하여금 가르칠 바를 알게 하며, 제자로 하여금 배울 바를 알게 한다.

1. 옛날에는 부인婦人이 임신妊娠하면 다음과 같이 하였다.

잠잘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눕지 않았으며, 앉을 때 모서리에 앉지 않았으며, 설 때 외발로 서지 않았다.

맛이 바르지 않은 음식飲食을 먹지 않았으며, 바르게 찢지 않은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바르지 않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바르지 않은 색色을 보지 않았으며, 바르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밤에는 악사樂師에게 《시경詩經》을 외게 하고, 바른 일을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용모容貌가 단정하고, 재주가 보통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 한漢나라 유향劉向, 《열녀전列女傳》

2. 무릇 아이를 낳으면 아이 기를 여러 보모保母를 가려서 뺏는데, 반드시 너그러우면서 여유餘裕가 있으며, 인자仁慈하면서 은혜恩惠로우며, 온화溫和하면서 어질며, 공손恭遜하면서 조심성 있으며, 삼가면서 말이 적은 자를 구하여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아이가 제 스스로 밥을 먹으면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친다.

말을 시작하면 남자男子는 빨리 대답對答하게 하고, 여자女子는 천천히 대답하게 하며, 남자는 가죽띠를 매게 하고, 여자는 실띠를 매게 한다.

6세가 되면 숫자와 방위方位의 이름을 가르친다.

7세가 되면 남녀를 구별하여 남자와 여자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않으며,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다.

8세가 되면 문을 출입하거나 자리에 나아가고 음식飲食을 먹을 때 반드시 어른보다 뒤에 하게 하여, 비로소 겸손謙遜과 사양辭讓을 가르친다.

9세가 되면 육십갑자六十甲子 등 낱씨 세는 법을 가르친다.

남자는 10세가 되면 집 밖에 나가서 학문學問을 가르치는 스승을 모시고 바깥에서 거처하고 잠자며, 한자漢字의 여섯 가지 원리인 육서六書와 계산법을 배우며, 비단 저고리와 바지를 입히지 않으며, 기초 예절을 가르치며, 아침저녁으로 어린이의 예절禮節을 배우되 간략하고 진실한 것을 익힌다.

13세가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詩를 외우며, 《시경》의 〈작酌〉시에 맞춰 문덕文德을 상징하는 춤인 문무文舞를 춘다.

15세가 되면 《시경》의 〈무武〉시에 맞춰 무덕武德을 상징하는 춤인 무무武舞를 추며,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운다.

20세가 되면 성인成人이 되는 의식인 관례冠禮를 행하여 비로소 예禮를 배우며, 가죽옷과 비단옷을 입으며, 우禹임금의 음악인 대하大夏에 따라 문무文武를 겸한 춤을 추며, 효도孝道와 공경恭敬을 돈독히 행하며, 배우기를 널리 하되 가르치지는 않으며, 마음 속에 아름다운 덕德을 쌓아두되 표현하지는 않는다.

30세가 되면 아내를 두어 비로소 농사農事를 짓고 부역賦役을 하는 등 남자의 일을 하며, 제한을 두지 말고 널리 배우며, 친구親舊에게 공손히 하되 그가 숭상崇尙하는 뜻을 살핀다.

40세가 되면 비로소 벼슬하여, 사물事物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내어 도道가 합당하면 따르고, 합당하지 않으면 떠난다.

50세가 되면 대부大夫가 되어 관청의 정무政務를 맡아서 처리한다.

70세가 되면 벼슬을 그만둔다.

여자는 10세가 되면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

여자 스승이 여자 아이를 가르치되 말을 상냥하게 하고, 용모容貌를 부드럽게 하여 명령을 따르며, 삼과 모시, 명주실과 누에고치를 다루며, 비단을 짜고 끈을 짜서 여자의 일을 배워 의복衣服을 장만하도록 가르친다.

또 제사祭祀를 보살피 술과 초, 대나무 제기祭器와 나무 제기, 김치와 젓갈 등을 올려, 예禮로써 어른을 도와 제수祭需 올리는

일을 돕도록 가르친다.

15세가 되면 비녀를 꽂고, 20세가 되면 시집가는데, 부모父母의 상喪을 당하면 23세에 시집간다. 《예기禮記》〈내칙內則〉

3. 어린 자식에게는 항상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설 때에는 반드시 방향을 바르게 하며, 귀를 대고 남의 말을 엿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기》〈곡례曲禮〉

4. 옛날의 학교는, 25가호家戶가 사는 마을인 여閭에는 ‘숙塾’이라는 학교가 있었으며, 500가호가 사는 마을인 당黨에는 ‘상庠’이라는 학교가 있었으며, 2,500가호가 사는 마을인 주州에는 ‘서序’라는 학교가 있었으며, 서울에는 ‘태학太學’이 있었다.

《예기》〈학기學記〉

5.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도리道理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면서〔飽食暖衣〕편안히 살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인 요堯임금께서 이를 근심하여 신하 設契를 교육 담당관인 사도司徒에 임명하여 오륜五倫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오륜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으며〔父子有親〕,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義理가 있으며〔君臣有義〕, 부부 사이에는 분별